



# 오늘날의 핵무기

**오늘날 9개국이 수천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백 기는 고도의 준비 태세 상태로 운용돼, 몇 분 안에 사용될 수 있다.**

이 핵무기들은 미사일 사일로, 항공기, 잠수함에 실려 있다. 일부 탄두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거나 대륙을 가로질러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핵무기는 핵시대의 태동기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보다 훨씬 더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가장 위력이 큰 폭탄은 재래식 화학 폭탄인 TNT 100만 톤, 즉 1메가톤이 넘는 위력에 맞먹는다.

전장에서 사용되도록 개발된 이른바 “전술핵무기”조차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배에 달하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핵무장 잠수함 한 척이 12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각 미사일에는 여러 개의 핵탄두가 장착된다. 이들의 파괴력을 합치면 100개가 넘는 도시를 파괴할 수 있다.

## 핵무장 국가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총 9개국이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가장 크다.

핵무기가 배치된 군사기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핵 공격의 희생자가 되거나 사고로 인한 핵폭발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 정부의 보안 때문에 몇몇은 자신이 핵무기 가까이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대다수의 핵무기는 단순히 보관된 것이 아니다. 대신, 언제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각국 정부는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국의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핵보유국은 핵무기 사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새로운 핵무기와 발사 체계를 개발하는 중이다. 이들은 핵전력을 무기한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

핵보유국들이 군축에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 심지어 비국가 단체들까지도 언젠가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커졌다.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군축은 필연적이다.

핵무기 확산을 위한 핵심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의 실효성은 불확실하다.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단 수개월 만에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시설과 물질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러한 사례는 원자력 프로그램이 핵무기 확산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 몇 킬로그램의 고농축 우라늄이나 분리된 플루토늄으로도 핵폭탄 1기를 만들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물질은 세계 곳곳에 수백 톤 단위로 비축되어 있으며, 지금도 추가 생산되고 있다. 군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 공모 국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9개국뿐이지만, 30개가 넘는 국가들이 핵무기의 보유와 잠재적 사용을 옹호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컨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은 모두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는 자국 영토 내에 미국의 핵폭탄을 배치하고 있으며, 투하를 위한 항공기와 인력 또한 제공했다. 벨라루스도 러시아의 핵무기를 배치하며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다.

일부 국가는 타격 목표 설정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이 자국 영해를 통과하고 입항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핵무기가 실린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고 공항에서 급유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러한 모든 공모 행위는 핵무기로 인한 위험을 지속시키고 군축을 위한 움직임을 방해한다.



독일에서 시위대가 미국 핵폭탄이 배치된 군사기지를 봉쇄하고 있다. 사진 제공: 랄프 슬레제너

2023년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러시아의 핵미사일. 사진 제공:  
러시아 정부

박물관에 전시된 미국의  
핵미사일. 사진 제공: 미국 정부

